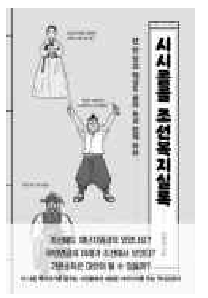
재난지원·무상급식…조선에서 배우는 복지사회의 미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박영서 지음



"조선은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인의(仁義)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누가 봐도 더는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애초에 '공정한 분배'가 목표가 아니었기에, 파이를 더 불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을 육성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적 고민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복지라는 '사랑의 표현'에만 천착했습니다. "(본문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난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어떤 이들에게 지원금은 '생명줄'과도 같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영향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시대를 떠나 복지는 중요한 관심사다. 조선시대에도 복지제도가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선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역사시간에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 같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뿐인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수탈을 당하는 조선 민중의 고달픈 삶을 숱하게 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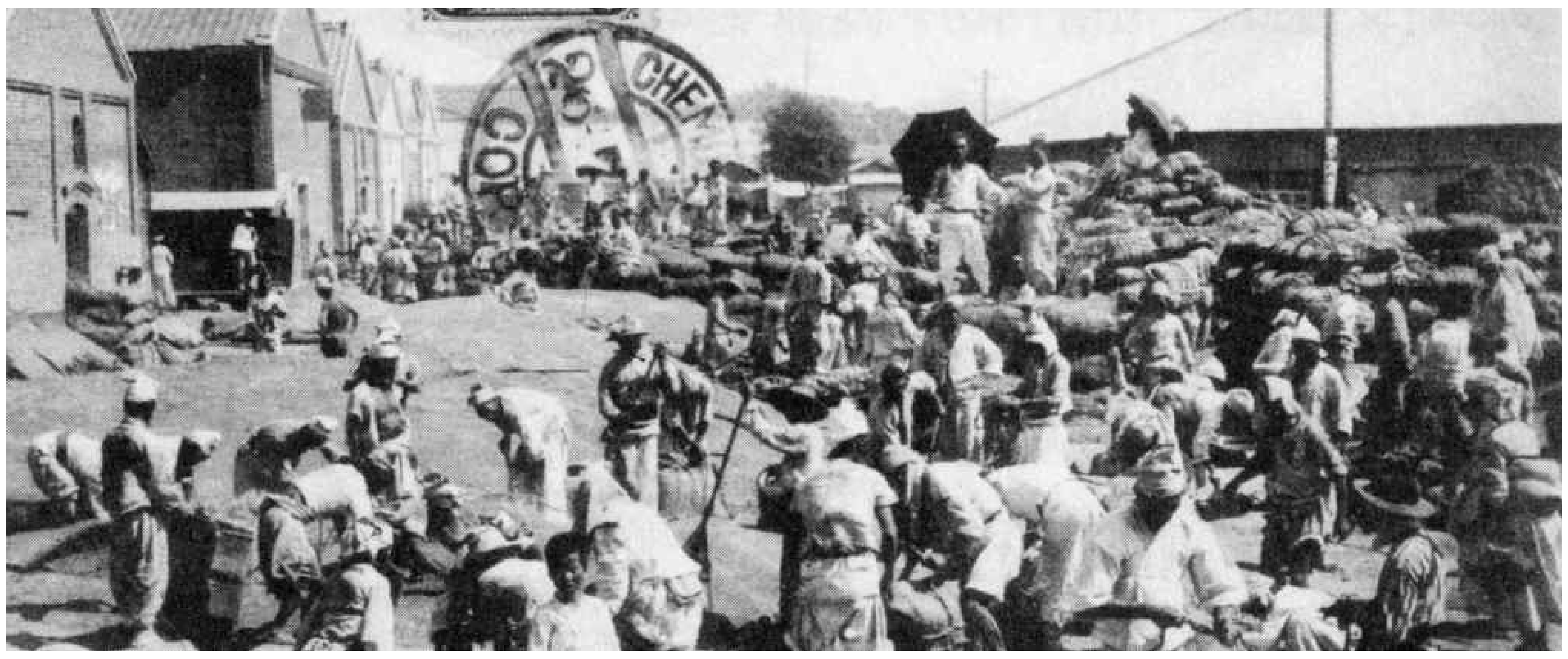
'조선시대가 복지국가였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책이 발간됐다. 책은 조선을 복지국가로서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의 저자 박영서 작가가 펴낸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단 한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의 복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조선의 복지를 말하기에 앞서 역사의 시계를 1392년으로 돌린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환과고독은 독신남자, 독신여자, 고아, 독거노인을 이르는 말로 당대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었다. 태조는 왕의 최우선 업무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봤다.

저자는 서구와 현대 복지국가들이 상정하는 이상사회가 '재화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된 상태'라면 조선의 이상 사회는 '모두가 인격적 완성을 이루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빈곤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인격적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구황(救荒)은 천재지변이나 기근이 들면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진휼과 무료 급식소, 환급이 있었다. 진휼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이다. 당시 진휼청은 수령을 비롯한 각 관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질 만큼 '전천후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였다.



조선 후기에는 쌀을 거래하는 시장이 한양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은 이를 '싸전'이라 불렀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인천의 곡물시장 사진엽서.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1445년 흉년이 들었을 때 조정은 21만7000세대에 273만8000석의 곡식을 무상 지급했다. 당시 가구당 인구를 4인으로 잡아도 대략 8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온다. 1400년대 조선 인구가 580만 여명임을 감안하면 인구 13%이상이 재난지원금으로 아사를 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환곡은 춘대추납(春貸秋納) 제도로 운영한 복지 정책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조선의 국민연금'이다.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로 상평창, 의창, 사창 등이 시대마다 다르게 운영됐다. 환곡에 투입되는 양은 막대했다. 1725년(영조1년) 환곡으로 빌려주는 곡식이 약 300만석에 달했다. 18세기 후반 환곡 저장량은 999만5599석에 이르렀다.

물론 환곡은 명암이 있었던 제도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항상 맞추려 했던 조선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지방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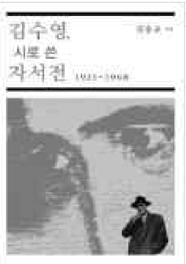
또한 조선은 시식(施食), 다시 말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했다. 지방에서는 흉년이 들 때마다 무상 급식을 진행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실 급식 문제도 대두됐다는 기록도 있다. 부실 급식에 분노한 숙종이 불호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저자는 "조선이 바라본 백성, 조선이 설계한 이상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복지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안녕하지 못한 백성을 안녕하게 하려는 정책'이며 이는 현대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들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

김응교 지음



지난 2021년은 김수영(1921~1968)의 탄생 100주년 되는 해였다. 197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됐던 김수영. 4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시인들은 여전히 김수영이라는 자장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김수영의 생애를 시편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책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은 문학평론가인 김응교 교수가 김수영의 전체 작품 120여 편 중 72편을 선별해 묶었다. "김수영의 시를 김수영의 시와 산문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김수영의 삶, 그 다음에 김수영이 살았던 역사적 상황과 비교해야 하겠지요. 외국 이론을 이용하여 시를 푸는 방식은 우선 그 시인의 시로 푼 다음에 한참 뒤에 해야 할 일이지요."

사실 김수영이 살았던 시대는 격변과 격랑의 시기와 맞물렸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5·16쿠데타와 군부독재 등 유례가 없을 만큼 격동의 시기였다. 김수영은 지식인으로서의 사회 참여에 침묵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대응을 했고 시편과 산문들은 생생한 증거다.

책은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해방부터 6·25전쟁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공자의 생활난' 등 초기 시를 분석했다. 2부는 전쟁 직후 곤핍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문학적 지향을 모색 중인 치열했던 30대 초기가 이에 해당한다. 3부는 1955년부터 1960년 4·19 직전까지를 다룬다. '폭포', '봄밤' 같은 미학적 형상화를 이룬 작품이 대상이다. 4부와 5부는 각각 4·19혁명과 5·16군사반란 직전, 5·16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다룬다. 〈삼인·2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지음, 박아람 옮김

무분별한 과학 발전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과학소설, 괴물의 얼굴 뒤에 가려진 괴물보다 더 끔찍한 인간의 욕망을 파헤친 불멸의 고전. 바로 메리 셸리의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다. 아버지의 영향 아래 문인들과 교류하며 일찍부터 문학에 재능을 보였던 메리 셸리는 '마지막 인간', '포크너' 등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에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나온 '프랑켄슈타인'이 출간됐다. 작가가 유부남 퍼시 비시 셸리와 유럽으로 도피여행을 떠나 바이런 경과 뱀파이어 장르의 창시자인 존 폴리도리를 만나 1816년 여름을 함께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각지 괴담을 한 편씩 써보자"는 바이런 경의 제안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했고 메리 셸리는 1818년 '프랑케슈타인' 초판을 출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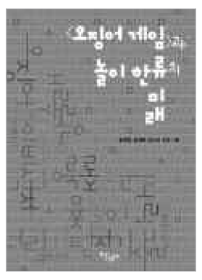
지난 1831년판 서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한 미지의 두려움을 건드리고 오싹한 공포를 자극하는 이야기, 무서워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원했다."

소설은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자연과학 이론을 탐독하며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은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면서 시작된다. 본래는 아름다움을 꿈꾸었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난 피조물은 흉측한 몰골이다. 문제는 창조자에게 버림받은 괴물이 엄청난 증오에 휩싸이며 복수를 시작한다. 초판이 출간된 지 200여 년이 넘었지만 소설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시각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제임스 웨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뛰어난 장르 클래식으로 인정받았다. 아마도 원작의 묘미는 누가 선이고 악인지 대답할 수 없는 궁지 속으로 독자를 몰아넣는 데 있을 것이다. 〈휴머니스트·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징어 게임〉과 놀이 한류의 미래

문재현 외 지음



영화 '기생충'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한국에서 제작된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징어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에 한국의 전통 놀이와 정서를 결합한 이야기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근 출간된 '〈오징어 게임〉과 놀이 한류의 미래'는 고무줄놀이, 윷놀이, 강강술래 등 '우리 놀이'를 통해 K-컬처를 살펴보고, K-컬처의 미래와 지향점에 대해 알아보는 책이다.

저자로는 우리 놀이를 살리기 위해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며 줄다리기, 아기 어르는 소리 등을 복원한 문재현을 비롯해 한솔초등학교 교장 윤재화, 남산초등학교 교사 임오규,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청소년 모임 '모아' 등이 참여했다.

책은 '〈오징어 게임〉과 놀이 한류의 미래', '비석치기, 호주 아이들을 사로잡다', '독일에서 느낀 우리 놀이의 힘', '고무줄놀이와 새로운 문화창조', '윷놀이의 뿌리와 속살을 찾아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들은 우리의 전통 놀이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을 파헤치고 이를 살리기 위해 탐구하고 실천해 온 과정을 소개한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않은 놀이문화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를 되살릴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넘어 K-컬처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한다.

저자들은 "〈오징어 게임〉은 그 한류의 흐름이 놀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가 깊어지고 두터워지면 민속이 한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살림터·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the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